

갈 길 못찾고 있는 돈

영웅은 그 시대를 맞아 태어난
다고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다.
이는 사람과 시대가 서로 맞아야

분야, 그중에서도 작지만 강한
전문 중소기업쪽으로 모아져야
투자자 자신도 돈을 벌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경제도약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
본다.

21세기는 IT분야의 전문 중소기업 시대

영웅이 된다는 말로 풀이되고 있
다.

이것은 또한 돈을 버는데 있어
서도 마찬가지 인 듯 하다. 우리
는 그동안 돈이 생기면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들여야 돈을 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던 것이 작년말 갑자기 찾
아온 IMF로 인해 그 생각이 순
식간에 바뀌어 반대로 부동산을
팔아 높은 금리를 챙기는 쪽으로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돈이 갈길을 잃은 것처
럼 보인다.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라
면 이제 과연 돈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제 돈은 예고된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서 가장 유망한 IT

21세기는 IT시대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정보화사
회로 급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피부로 느낄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 같다.

정보화사회란 그 동안의 공업화
사회 발달로 발생된 역기능을 가
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IT 즉, 정보기술이므로
정보기술이 조직이나 개인에 있
어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
한 요소가 되는 사회를 말한다.

그러므로 지금 세계는 정보기술
의 우위확보를 위해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이는 다가온 21세기에 정보기술
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할

박 재 린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상무이사

뿐만 아니라 가장 유망한 분야라는 것을 명확히 시사하는 것이다.

작고 강한 기업만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생존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금 세계는 WTO 체제의 출범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어가고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가장 유리한 곳에서 돈을 구하고 가장 유리한 곳에서 개발을 하고 또 가장 유리한 곳에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며 판매를 해야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글로벌 경영시대가 눈앞에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는 강한 기업만이 살아 남을 수 있어 자본력이 취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작지만 강한 전문 중소기업을 지향해 나가는 길 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노동력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해왔던 시대와 비교해보면 서로 대조적인 방향일 것이다.

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작지만 전문기업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기업만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기술 및 지식의 집약화가 고비용 생산구조 극복

과거에 우리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해올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노동력의 비교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동안의 품목을 갖고 지금의 생산비용으로는 가격 경쟁에서 이길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경제가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보다 기술 및 지식집약적인 품목 즉, 우리 생산 비용에 맞는 이른바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생산품목을 고도화시켜 나가야만 한다.

이런 관점에서도 향후 우리가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 IT와 같은 전형적인 기술 및 지식집약 산업으로 우리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한다.

IT 산업은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산업

기술 및 지식집약 산업이라 함은 제품의 생산 또는 용역을 함에 있어 그 비용의 구조상 기술 및 지식의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을 의미하고 기술 및 지식은 사람에 의해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산업여건을 보면 부존자원이 빈곤한 대신 잠재인력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기술 및

지식집약산업은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내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수출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하므로 국제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기술 및 지식집약 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와 산업여건이 유사한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IT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해 가고 있는 현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투자와 기술 및 지식의 만남이 활성화되어야

지금 우리는 그동안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른바 IMF의 고통으로 내일은 커녕 당장 오늘의 아픔에 젖어 헤쳐 나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만일 우리가 계속 아프다고 신음만 한다면 정말 우리경제의 제도약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아니 영원히 재기할 수 없을는지 모른다.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전후 좌우로 검토해본 바로는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IT와 같은 기술 및 지식집약분야로서 이를 위해서는 인재개발에 주력해 기술 및 지식이 투자와 서로 만나는 것이 우선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전문화를 통해 작지만 강한 기업을 보다 많이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빠른 기간에 IMF를 졸업하고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부족할 뿐 아니라 투자전문회사나 개인투자자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예가 거의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껏해야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이 고작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높은 금리 환경 아래서 창업단계서부터 고금리를 부담하다보면 그 위험이 더 커질수 밖에 없다. 미국, 대만 등 벤처기업이 활발한 국가의 경우를 보면 벤처기업은 직접 투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예의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기업, 연구소, 학교, 외국인 등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IT분야의 기술 및 지식, 정보 등을 갖춘자를 보다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재양성과 벤처기업인들과 투자자들이 손쉽게 서로 만나 창업을 활성화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전문 중소기업의 발전 환경조성과 규제 완화에 역점을

순수한 시장경제, 더욱이 무한경쟁의 환경 아래서 작은 기업이 창업해 성공하기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기술, 자금, 시장, 인력, 정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소기업은 그만큼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정부의 산업정책은 IT와 같은 기술 및 지식집약분야의 중소기업의 발전할 수 있도록 공업단지조성, 연구개발, 인재양성, 기술정보제공, 자금지원 등 산업인프라구축 지원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정부가 그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또 그것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자금지원 등으로 보완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와 준조세 성격의 기업부담금제를 점차 축소, 폐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기업인도 전문화를 통해 세계를 상대로 발전시켜가야

IT분야의 신생 중소기업들은

그동안의 중소기업들과는 좀 다르게 세계를 대상으로 발빠른 혁신과 전문화를 통해 최고를 지향해 나가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IT분야는 원래 선진국 중심으로 먼저 시장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술, 품질, 시장 모두 세계를 대상으로 최고를 지향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중소기업이 가장 활발한 대만의 경우를 보면 정부의 지원정책도 배워야 할 요소지만 기업인 스스로는 물론 상호 협력을 통해 협소한 국내시장의 벽을 넘어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을 키워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어 우리 신생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점은 배워야 한다고 본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이렇게 강한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아져야 우리 경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 대기업들도 전문 중소기업들로 다져진 튼튼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상호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갈수 있다.

오늘의 이 시련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21세기에 우리 전자정보산업이 제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